

“parler”와 “βολη”, 그 통시적 변화의 제 양상

- “βολη”의 파생어휘를 중심으로 -

장 재 성 (서울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β ο λ η”의 파생어휘의미장

1. “βολη”의 그리스어 어휘의미장
2. “βολη”의 프랑스어 어휘의미장
 - 2.1 “βολη”의 민중어 어휘의미장
 - 2.2 “βολη”의 식자어 어휘의미장

III.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인도유럽어의 어휘생성의 근본원리인 파생dérivation과 복합 composition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신어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언어인 그리스어는 많은 어휘를 라틴어에 전수한다. 또 이 어휘들은 그대로 로망어로 이입되어서 프랑스어에도 상당수의 그리스어 기원의 어휘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어휘들은 하나의

어기base에 십여개의 접두어¹⁾가 번갈아 붙어서 생성되는 접두 파생과 접미사에 의한 카테고리변화에 의해 확장된 어휘의미장을 형성하게 된다.

현대 프랑스어의 어휘에 이입된 그리스어 “βολη”의 어휘 의미장도 “βολη”가 하나의 어기가 되어 많은 파생어휘를 생성한다. 그러나 프랑스어 내에서의 “βολη”의 어휘의미장은 각 어휘가 겪은 통시적 음성변화로 인해 서로의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프랑스어 “parler”와 그리스어 “βολη”는 형태상으로 보아서는 무슨 관계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parler”의 어원인 그리스어 어휘 “παρὰβολη”의 라틴어 형태의 파생동사인 “parabolare”가 통시적 음운 변화를 겪어서 어기의 형태가 사라져서 특별한 통시적 어휘 형태분석이 아니면 그 연관 관계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parler”와 “βολη”의 어원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는 그리스어 “βολη”가 어떤 형태변화를 겪어서 프랑스어의 주요동사인 “parler”의 어원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어 어휘를 통시적으로 분석할 때 현재의 형태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파생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특히 라틴어를 경유하여 들어온 그리스어 어휘는 라틴어 내에서 이미 차용어로서의 신분으로 그리스어 고유의 생산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프랑스어로 이입될 수밖에 없었는데 19세기 이후 학문의 발달과 더불어 학문적 분야를 비롯하여 식자층에서 다시 그 파생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

1) 그리스-라틴어의 접두어는 대부분 독립적으로는 전치사와 부사이다.

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어 내에서의 “βολη”의 어휘의미장을 구성하고 그 어휘들의 상관관계를 밝혀서 현대 프랑스어 내에서 신어생성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어계 식자어 mots savants들의 생산성 productivité과 어휘가능성 disponibilité²⁾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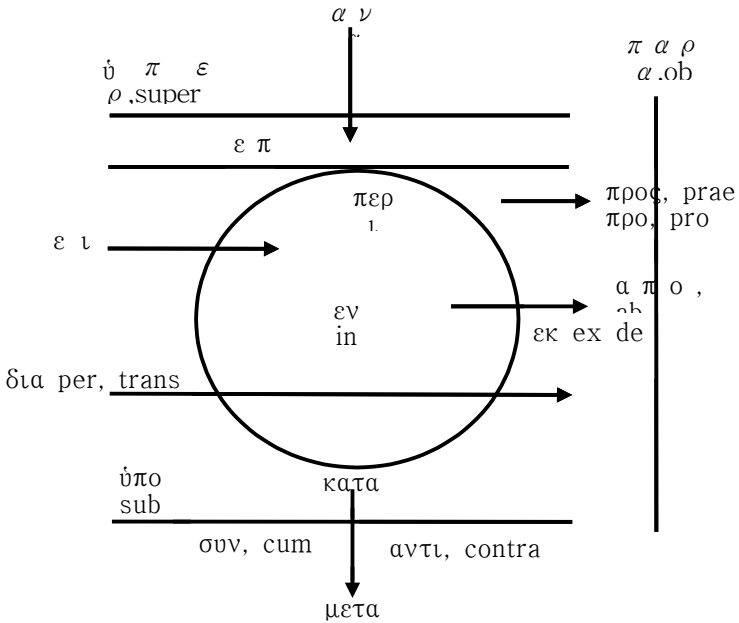
II. “βολη”의 파생어휘의미장

그리스어계 어휘의 생산성과 어휘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 그리스어와 프랑스어 내에서의 “βολη”의 파생어휘장을 구성하여 이들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한다. 먼저 그리스어·라틴어 전치사들의 상대적 위치표를 인용하여 보자.³⁾

2) 어휘의미장을 채우는 방향으로서의 신어생성 가능성.

3) 장재성(2002)

<표 1> 그리스어·라틴어 전치사들의 상대적 위치표



위의 표는 어휘형성에서 가장 활발한 접두어 역할을 하는 그리스어·라틴어 전치사를 각자가 표현하는 방향에 따라 하나의 표로 나타내 본 것이다.⁴⁾

그리스어와 라틴어에는 이보다 더 많은 전치사와 부사들이 있으나 생산성을 고려하여 그리스어 17개, 라틴어 13개를 선택하였다.

이 표는 앞으로 이 접두어들이 어떻게 그들의 방향성에 따라 어휘생성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기본 분석 자료로 활용될

4) 그리스어·라틴어 전치사들은 기본적으로 장소적 위치, 방향 등을 나타낸다.

것이다.

1. “βολη”의 그리스어 어휘의미장

“βολη”는 “던지다jeter”의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 동사 “βαλλω”의 파생명사형이다. 이 “βαλλω”에서 파생한 동사인 “βαλλιζω”가 4세기에 “춤추다danser”의 의미인 “ballare”형태로 라틴어에 의해 차용된다.

그리스어에서 “βαλλω”는 명사파생어 “βολος”와 “βολη”⁵⁾를 갖는데 프랑스어 “parler”와 관련이 있는 형태는 “βολη”이므로 이 형태가 프랑스어 파생어휘장의 대표가 된다.

5) 그리스어에서 “βολος”는 남성형, “βολη”는 여성형이다.

<표 2> “βολη”의 어휘의미장 구성표

	βαλλω	βολος	βολη	βλημα
0. x	o	o	o	o
1. ανα	o		o	
2. εν	o	o	o	o
3. εκ	o	o	o	
4. δια	o	o	o	
5. εις	o		o	
6. περι	o	o	o	o
7. επι	o		o	o
8. προ	o	o	o	o
9. προς	o		o	
10. απο	o		o	o
11. κατα	o	o	o	o
12. παρα	o	o	o	o
13. `υπερ	o		o	o
14. `υπο	o		o	o
15. συν	o	o	o	o
16. μετα	o	o	o	o
17. αντι	o		o	
18. αμφι	o	o	o	o

(“βολον”, “βλησις”같은 명사파생형도 존재하는데 “συν”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표 2>는 “βολη” 계열의 그리스어 파생어휘 목록인데 동사 “βαλλω” 계열과 명사 “βολη” 계열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18개의 접두어⁶⁾와 이렇게 전부 어휘를 형성하는 기어는 라틴어와 프랑스어는 물론이고 그리스에서도 정말 드문 예이다.⁷⁾

그리고 대표계열인 “βολη”와 “βαλλω” 뿐 아니라 “βολος”와 다른 형태의 파생명사인 “βλημα”⁸⁾도 무려 12개의 어휘를 생성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이전 연구에서 다루었던 기어들에 비하면 정말 완벽한 어휘의미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어와의 비교를 위하여 “βολη”의 프랑스 식자어 어휘의미장 구성표를 먼저 제시하기로 한다.

“βολη”의 프랑스어 형태는 당연히 식자어의 형태를 띠는데, “-bol-”과 “-blèm-” 형태가 주를 이룬다.

6) “αμοι”는 그리스어 부사로 1)의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7) 장제성(2001, 2002)참조

8) “βλημα”는 “βαλλω”의 제1명사파생이라고 할 수 있는 “βολη”로부터 제2명사파생을 한 것이다. 그리스어는 인도유럽어 고유의 e/o 모음교체파생에 의해 동사에서 명사를 생성하는데 “βαλλω”에서처럼 동사에 모음 e/o가 없는 형태는 모두 degré zéro 형태라 하고 여기에서 생성된 “βολη”는 degré plein이라 한다. 또 “βολη”의 모음 “o”가 “βλημα”에서 사라지는 것도 degré zéro라고 부른다. 또한 “βλημα”의 어미 “-μα”는 명사파생접미어로서 “(동사적)행위의 결과”를 나타내고 이에 비해 “-σις”는 “(동사의)행위”를 나타낸다.

<표 3> “βολη”의 프랑스 식자어 어휘의미장 구성표⁹⁾

	-bol-	(-bolisme-)	-blèm-
0. x	o		
1. en(εν)	o	o	o
2. dia(δια)	o		
3. pro(προ)			o
4. para(παρά)	o		
5. hyper(ῆ υπερ)	o		
6. syn(συν)	o		
7. cata(κατά)		o	
8. ana(ανα)		o	
9. méta(μετά)		o	
10. amphi(αμφι)	o		
11. disco(δισκο)	o		

이 계열의 프랑스어 파생어휘의미장과 비교해보면 그리스어의 어휘의미장이 얼마나 많은 파생어휘를 생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표 2와 3의 비교에서 주목할 것은 프랑스어의 식자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휘장 내에서 비어있는 우연적 공백lacune accidentelle을 채우는 방향으로 어휘를 생성시키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9) 그리스어와의 직접 비교를 위해 표를 먼저 제시하고 이 어휘장의 분석은 프랑스어 어휘형성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앞선 민중어 분석 다음에 하기로 한다.

2. “βολη”의 프랑스어 어휘의미장

“βολη”의 프랑스어 어휘의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통시적 음성변화를 거친 민중어 *mots populaires* 형태와 그리스어와 라틴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식자어 *mots savants* 형태인데, 사실상 민중어 형태도 그리스어에서 차용한 라틴어 형태가 통시적 음성 변화를 겪은 것이다.

2.1 “βολη”의 민중어 어휘의미장

2.1.1 “ballare”계열

“ballare”계열은 접두어가 붙지 않은 계열로서 이 글의 주논제인 “parabolare”계열을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의 역할을 한다. 이 계열은 본토 그리스어 “βαλλω”에서 파생하여 이태리 남부에서¹⁰⁾ 사용한 동사인 “βαλλιζω”에서 “danser”의 의미로 라틴어에 이입된 어휘여서 “jeter”의 의미를 갖는 다른 계열과는 구별되며 따라서 주로 “춤”과 관련된 어휘군을 형성한다.

i. bal(XII < anc.fr. *baller*)

↘¹¹⁾ ballant(XVII participe présent de l'anc.fr. *baller*)

“bal”은 고대 프랑스어 “baller”에서 역파생 *dérivation régressive* 로 형성된 것이다. 즉 동사 “baller”에서 어미가 탈락하여 명사

10) 기원 6-7세기 나폴리 이하의 이태리 반도는 그리스의 영향 하에 있었다. 나폴리라는 지명도 그리스어의 “νεα + πολις”로서 그 뜻은 “새로운 + 도시”이다.

11) “↘”은 직접파생을 나타낸다.

인 “bal”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ballant”은 “baller”의 현재분사형이 독립적으로 어휘화한 것이다.

ii. ballade(XIII < prov. *balada* < *balar* < *ballare*)

↘bal(l)ader(XVII argot des gueux “mendier”; XIX “promener”),
balade“promenade”

↘balladeuse(XIX“prostituée”)→balladeur(XXdivers sens techniques)

“ballade”는 남프랑스의 프로방스어 “balada”에서 유래한 것으로 “춤곡의 가사 역할을 하는 시”의 의미이다. “balada”는 “ballare”의 프로방스 지역 파생어인 “balar”에서 나왔다.¹²⁾

“ballade”에서 17세기에 걸인들의 은어로 파생된 “ballader”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걸하다”의 뜻에서 19세기에는 “산책하다(시키다)”의 의미를 갖고, 여기에서 역파생으로 명사 “balade”와 행위자 파생접미사 “-eur”을 첨가하여 명사인 “bal(l)adeur(se)”가 생성된다.

iii. baladin(XVI < prov. *baladin* “danseur”)

프로방스어의 형태가 그대로 ile-de-France지역의 프랑스어로 이입된 것으로 “무용가”의 의미이다.

iv. a. ballet(XVI < it. *balletto* dim. de *ballo*“danse” dér de *ballare*)

b. ballerine(XIX < it. *ballerina* “danseuse” dér de *ballare*)

12) 남프랑스와 가까운 스페인어의 “bailar”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ballet”는 이 계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로 춤의 한 장르가 되었다. “ballare”에서 파생된 이탈리아어 “ballo”의 지소사인 “balletto”가 프랑스로 들어오면서 오늘날 춤 예술의 주요 장르인 “ballet”가 되었다.

“ballerine” 역시 “ballare”에서 파생된 이탈리아어 “ballerina”의 프랑스어형이다.

v. bayadère(XVIII<port. *bailadera*“danseuse”<*bailar*“danser”)

“bayadère”는 “ballare”의 이베리아반도 파생형인 “bailar”에서 생성된 포르투갈어 “bailadera”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시기는 유럽의 대항해시기로 이 시기를 주도하였던 이베리아반도의 어휘가 유럽으로 전파되던 시기였다.

2.1.2 “καταβαλλω”계열

“καταβαλλω”계열은 원형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성변화를 겪은 계열이지만 그리스어에서의 원래 의미인 “jeter”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ballare”계열과는 구분된다.

“καταβαλλω”의 계열의 라틴어 형태인 “catabola”의 통시적 음성변화는 라틴어 accent 규칙¹³⁾¹⁴⁾과 게르만족의 발음 특성¹⁵⁾

13) 라틴어에서의 “accent”의 의미는 고저accent로서 현대 프랑스어의 의미와 다르다.

14) i) paroxyton : # CV₁CV₂...CV_{n-1}CV_n #

모든 라틴어의 accent은 V_{n-1} 이 장음일 때는 항상 이 음절 위에 accent이 온다.

ii) proparoxyton :# CV₁CV₂...CV_{n-2}CV_{n-1}CV_n #

만약 V_{n-1}이 단음이라면 accent은 이 음절에 놓이지 않고 V_{n-2}로 이동한다.

위의 i), ii)가 주강세accent premier라고 한다면 부강세accent secondaire는 항상

의 두 가지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라틴어의 발음은 2세기부터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¹⁶⁾

i. chablis(XVII < anc.fr. *chabler* “abattre” < lat. *catabolare* < gr. καταβολη)

첫음절인 V₁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음절수가 하나 둘인 단어의 경우는 첫음절에 주강세와 부강세가 겹치게 된다.

15) 지금의 프랑스의 옛 지명인 골지방의 언어변화는 크게 3단계로 표시할 수 있다.

c.	germanique
a.	latin
b.	celte

위 표는 프랑스어의 직계조상인 라틴어가 골지방에 들어왔을 때 골의 원주민들은 켈트어를 쓰고 있었고 골지방이 완전히 로마화(romanisation)되어 라틴어가 공식 언어가 된 후에 게르만어가 들어왔다는 것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라틴어의 발음은 2세기부터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16) 게르만인들은 강모음은 더욱 강하게 약모음은 더욱 약하게 발음하는 습성이 있었다. 즉 그들이 스스로 공식어로 정한 라틴어를 발음할 때 라틴어 발음법칙에서 강세모음을 더욱 강하게 발음하고 강세모음이 아닌 모음의 경우는 더욱 약하게 발음한 것이다. 아래와 같은 라틴어 어휘가 있다고 하자.

CV₁CV₂...CV_{n-1}CV_n

라틴어 악센트는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인 V_{n-1}에 주강세가 놓이게 되고 첫 번째 모음인 V₁에 부강세가 놓이게 된다. 이 때 자연스럽게 아래와 같은 관계가 형성된다.

V_{n-1} → 주강세모음 *voyelle tonique primaire*

V_{n-2} → 전강세(약)모음 *voyelle prétonique*

V_n → 후강세(약)모음 *voyelle posttonique*

V₁ → 부강세모음 *voyelle tonique secondaire*

“전강세모음”과 “후강세모음”은 오직 “주강세모음”과의 관계이며 “부강세모음”과는 관계가 없다.

이제 위에서 논의한 게르만식 라틴어 발음은 V_{n-1}은 더욱 강해지고 V_{n-2}와 V_n은 더욱 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태리에서부터 전파되어 비교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던 “bal” 계열과는 달리 “chablis”는 그리스어 “καταβολη”를 차용한 라틴어 형태인 “catabolare”가 통시적 음운변화에 의해 형성된 고대 프랑스어 “chabler”에서 파생되었다.

“chablis”에 대해서는 의미와 형태의 두 가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i-i. “chablis”는 “bois chablis”의 뜻인데 이것은 “bois abattu, dans une forêt, par le vent ou l’orage”로서 라틴어 “catabola”로부터 나온다.

라틴어 “catabolare”는 그리스어 “καταβολη”를 차용하여 자체 파생에 의해 동사로 만든 것이지만 그리스어의 의미를 모두 차용한 것은 아니고 일부만을 차용한 것이다.¹⁷⁾

“καταβολη”는 당연히 “κατα + βολη”의 형태로 여기 “βολη”에 접두어 “κατα”가 붙어서 파생된 것이다. 이 “καταβολη”는 제 1의미로 “action de jeter les fondements 기초를 다지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fondement, fondation, principe”의 뜻을 갖는데 또한 “attaque d’une maladie”와 같이 “병의 엄습”등의 의미도 갖는다. 라틴어로 이입될 때는 후자의 의미를 차용하여 “abatre”의 의미를 갖고 이 것이 고대 프랑스어에 와서 “bois abattu”가 된 것이다.

17)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그리스어 “εκκλησια”는 “민회”를 뜻하고 “민중들의 모임”으로 뜻이 확장되는데 기원 후 그리스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인의 모임”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곧 이태리반도의 로마제국에도 기독교가 전파되어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갖자 이 “εκκλησια”는 라틴어 “ecclesia”가 되어 오직 “기독교들의 모임”의 의미로만 쓰이게 되었다. 라틴어에는 “민회”라는 의미로 “comitium”이라는 어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i-ii. “catabolare > chabler”의 형태변화에 위에서 논의한 음운변화규칙을 적용하여 설명해 보기로 하자.

“catabolare”에서 첫 모음 “a”에는 부강세가 놓이고, 끝에서 두 번째 모음 “a”에는 주강세가 놓이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모음들은 모두 약모음이 된다.

<u>c</u>	<u>a</u>	<u>t</u>	<u>a</u>	<u>b</u>	<u>o</u>	<u>l</u>	<u>a</u>	<u>r</u>	<u>e</u>
↓	↓	↓		↓				↓	
tʃ	a	∅		bl				er	

“c a”에서 첫 자음 “c”는 구개음화 되어[tʃ]가 되고 13세기 경에 [tʃ]가 탈락하여 마침내 현대불어 형태의 [ʃ]가 된다. 첫째 모음 “a”의 경우 강세개음절syllabe tonique ouverte에서는 Bartsch의 법칙에 의해 모음상승현상으로 “e”가 되나, 두 번째 음절 “t a”에서 “t” 탈락 후에 “chaa”형태로 장음화되어 음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t a”는 약세음절이어서 필연적으로 약화되는데 무성방해음 “t”는 유성방해음에서 유성마찰음으로 약화된 후에 사라지게 된다.

t > d > δ > φ

“t”탈락 후에 모음 “a”도 탈락하게 되어 결국 음절이 사라진다.

“b o l”은 전강세약모음 위치의 “o”가 탈락하여 “bl”이 됨으로써 하나의 음절을 이루게 된다.

“a r e”의 “a”는 강세모음으로 음가를 유지하나 라틴어

가 변화하면서 모든 격변화어미 *désinence*의 “a”가 “e”로 상승한다.¹⁸⁾ 따라서 라틴어 제1형 동사어미 “-are”는 프랑스어에서 모두 1군동사형인 “-er”의 형태가 된다.

catabolare > chabler[**tʃ**abler]

이 때 주의할 것은 고대 프랑스어 “chabler”는 현대 프랑스어의 발음 [ʃable]와는 달리 첫 음이 마찰음 *spirante*이 아니라 파찰음 *affriquée*이고 어말 [r]이 고대 프랑스어에서는 발음되었다는 것이다.¹⁹⁾

ii. accabler(XIV < normanno-picard *chabler*)

↳ accablement(XVI), accablant(XVII)

“chablis”와는 달리 “accabler”는 접두어 라틴어 “ad”에서 유래한 “a-”가 붙어서 “chabler”의 형태가 다시 “cabler”로 식자화한 경우이다.

부사파생어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파생형태는 형용사에서 파생되는 것이고 다음에 명사에서 파생되지만 “accablement”의 경우 해당 명사나 형용사가 없이 직접 동사에서 파생된다.

2.1.3 “*παραβαλλω*”계열

“*παραβαλλω*”계열은 바로 이 글의 논의의 중심이 되는 “parler”

18) 라틴어 격변화 소멸 시기에 “a”를 제외한 모든 어미의 모습들은 사라지게 된다.

19) 어말의 [r]은 14세기경에 묵음이 된다.

를 생성하는 계열인데 그 형태에서 보듯이, “καταβαλλω”계열과 같이 어원을 추적하는 통시적 분석을 통하지 않고서는 원형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음성적 변화를 많이 겪었다.

사실상 프랑스어 어휘 “parler”와 그리스어 어휘 “βολη”는 공시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둘 사이에 의미와 형태상으로 어떠한 가시적인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시적 분석이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부터이다.

의미와 형태상으로 어떠한 연결고리도 보이지 않는 어휘들의 어원을 추적하여 어휘의미장을 만들고 그 역사적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프랑스어에 무수히 존재하는 같은 의미의 어휘군 내에서의 형태적 괴리의 원인을 탐구하여 밝히는 것이고,²⁰⁾ 또한 이러한 어휘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정신적 변천 혹은 그들의 세계관의 변화를 탐구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언어탐구는 그 언중들의 의식세계를 탐구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시적 언어탐구는 바로 오랜 세월을 통하여 언어에 담긴 그들의 정신적 세계와 가치관 속의 의식의 변화를 탐구하는 인문학적 작업인 것이다.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되는 “parler”와 “βολη”의 변화의 제양상을 탐구하는 것은 바로 현대 프랑스인들의 선조인 골 지역에 살았던 언중들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으며 어

20) 같은 의미의 어휘군 내의 형태적 괴리는 지금 여기서의 “parole”와 “parler”에서도 볼 수 있다. 명사형에 존재하는 모음 “o”가 동사형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maison”의 형용사 역할을 “domestique”가 할 수밖에 없고, “père”의 형용사가 “paternel”인 것도 공시적 음운, 형태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휘의미장 내의 형태적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휘를 선택해왔는지를 밝히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들이 선택한 어휘들은 오늘날의 현대 프랑스어 어휘가 되어서 프랑스인의 의식 속에 남아 그들의 공동의 정신적 문화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 i. parole(XI < lat. vulg. *paraula* < lat. eccl. *parabola* “parabole du Christ” < gr. παραβολη“comparaison”)
 ↳ parolier(XVI)

“parole”과 “parler”는 이 글의 핵심주제이다. 그리스어 “βολη”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들의 의미적, 형태적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밝히기 위해 “βολη”의 파생어휘를 중심으로 통시적 어휘의미장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²¹⁾

i-i. <표 2> “παραβολη”는 “παρα + βολη”로 구성된 어휘이다. 그리스어의 접두파생의 원리는 여기에 방향성을 주는 접두어가 붙어서 신어를 생성하는 것이다.

“παρα + βολη”에서도 “던지다”의 의미인 “βολη”를 “옆에 *auprès*”를 주의미로 하여 “반대되는*contre*”으로 확장되어 가는 전치사 “παρα”가 붙어서 “옆에 놓은 것”의 의미인 “비유 *comparaison*”가 된다.

이 “παραβολη”는 “παραβαλλω”의 명사형으로 유태계 그리스인 기독교 성서기자들이 성서에서 예수의 비유적 설교를 그리스어로 “παραβολη”라 하고 그 행위를 “παραβαλλω”를 써서 표현하였다.

21) 우리는 다른 곳에서 “parler”가 어떻게 인도유럽어에서 기원한 라틴어 고유의 “말하다”동사어기인 “pha-”와 “loq-”를 소멸시켰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런데 중세 기독교 라틴어에서는 “*παραβολη*”만을 차입하여²²⁾ “*parabola*”의 형태를 만들었고 그 동사는 “*parabola*”에서 라틴어식 자체 파생으로 “*parabolare*”를 생성하였다.²³⁾²⁴⁾

이 “*parabola*”와 “*parabolare*”가 바로 통시적 음운 변화에 의해 “*parole*”과 “*parler*”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parabola*”는 라틴어이므로 라틴어 강세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parabola*”에서 유성방해음 “b”는 “*cata*”의 “t”처럼 모음사이 *intervocalique*에서 약화되어 결국 소멸된다.

parabola > ... > *paraola* > *paraula* > ... > *parole*

그런데 이 변화에서 라틴어 강세규칙에 의해 주장세가 놓이게 되는 “*bol*”의 “o”는 그대로 유지된다.

i-ii. 이제 “*parole*”의 의미적 변화를 살펴보자.

i-i에서 논의한 대로 “*parole*”은 기독교 라틴어 “*parabola*”에서 형태 변화하여 된 것인데 이 “*parabola*”의 의미는 “비유, 우화”였다. 이 의미가 일반적인 “말”을 의미하게 된 것은 언어외적인 이유에서였다.

통시적으로 언어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언어현상을 언어내적 *intra-linguistique* 설명뿐

22) 라틴어는 많은 어휘를 그리스어에서 차용하지만 거의 전부가 실사 *substantif*에 한정된다.

23) “*parabolare*”는 라틴어 동사 제1형 변화이다.

24) 이 글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안되지만 그리스어에서 “*βολη*” 계열의 파생은 “V → N”의 순서이지만 라틴어에서 “N → V”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니라 언어외적extra-linguistique으로도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25)

5세기 이후부터 프랑스를 포함한 중세 유럽은 황제의 속권과 교황의 교권의 이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다.26)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미사를 드려야 하는 중세 프랑스 지역에서 사제들의 언어가 군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예수가 비유로 말하다”의 종교적 의미인 “parabolare”27)의 사용빈도수fréquence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일반적인 “말하다”의 의미를 갖는 어휘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은 “parler”가 “loq-”계열28)의 동사를 소멸시킨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parler”는 일반적인 “말하다”가 되고 자연히 “parole”은 “말”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 ii. parler(X<lat. vulg. *paraulare*<lat. eccl. *parabolare*<lat. eccl. parabola qui a éliminé “loqui”)
 - ↳ parlant(XVIII adj. “doué de parole”→XIX“qui reproduit la parole humaine”)
 - ↳ reparler(XII)
 - ↳ pourparler(XI “discuter”, “comploter” XV

25) 5세기 이후 중세 프랑스는 클로비스가 건립한 메로빙거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 클로비스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로마 교황청과 협약을 맺는데 이 때 클로비스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라틴어를 왕실의 공식 언어로 정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곧 지방에서 카톨릭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26) 황제의 속권은 Regnum : Auctoritas이고 교황은 Sacerdotum : Potestas이다.

27) 원래 이 어휘의 그리스어의 의미는 종교적 색채가 전혀 없는 순수히 “비유”의 의미이다.

28) “loq-”계열의 동사는 이미 고전라틴어 시절에 “pha-”계열의 동사를 소멸시킨다.

subst, pl. “discution en vue d'un accord”)

ii-i. “parole”의 라틴어 형태인 “parabola”의 모음 “o”가 라틴어 강세규칙에 의해 주강세가 놓이게 되어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parler”의 라틴어 형태 “parabolare”는 주강세가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인 어미의 “a”에 놓이게 된다.

p	a	r	a	b	o	l	a	r	e
↓		↓		↓		↓			
p	a	r	∅	∅	∅	l	a	r	e

결국 기독교 라틴어 “parabolare”는 이러한 통시적 음운변화의 결과로써 프랑스어의 “parler”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parabola”에서 온 “parole”과의 어기의 형태적 괴리 “r”과 “rol”의 원인은 라틴어의 악센트 규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기독교 라틴어로부터 현대 프랑스어에 이르기까지의 “parler”동사의 통시적 변화의 추이를 표로 종합하여 형태를 분석하여 보자.

<표 4> “parler”의 직설법 현재의 통시적 형태변화표²⁹⁾

	latin eccl.	anc. fr.	fr. mod.
1s ³⁰⁾	parab <u>o</u> lo	(je) parol(e)	je parle
	> para <u>u</u> lo		
2s	parab <u>o</u> las	(tu) paroles	tu parles

29) Lanly, A(1995)

30) “s”는 단수singulier, “p”는 복수pluriel을 나타낸다.

	> para <u>o</u> las		
3s	parab <u>o</u> lat	(il) parole(t)	il parle
	> para <u>o</u> lat		
1p	parabol <u>a</u> mus	(nos) parlons	nous rions
	> par(o)l <u>u</u> mus		
2p	parabol <u>i</u> stis	(vos) parlez	vous arlez
	> par(o)l <u>i</u> stis	ou parlés	
3p	parabol <u>a</u> nt	(il(s)) parlent	ils arlent
	> para <u>o</u> lant		

<표 4>는 “βολη”의 파생어휘 “παραβολη”가 라틴어 “parabola”로 차용되어 “parler”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과정을 나타낸다.

“parabola”에서 파생된 동사 “parabolare”는 당연히 라틴어 악센트 규칙을 적용받는데 위의 표에서 검게 밑줄 친 모음들이 주장세 모음임을 나타낸다. 이 라틴어 주장세 모음의 위치가 현대 프랑스어의 동사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arabolare”의 기독교 라틴어 활용표에서 1s: “parabolo > paraulo, 1p: parabolamus > parlumus” 등의 변화는 고대 프랑스어로 이행하는 중간과정을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6개의 인칭변화에서 1p와 2p의 경우는 주장세가 “o”에 오지 않고 “l”뒤의 모음 “a”에 놓인다. 이것은 라틴어 동사활용어미의 형태에 기인한다.

라틴어의 동사활용에서 일인칭 복수와 이인칭 복수는 어미에 이미 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인칭은 실제 활용에서 주장세가 어기의 모음에 놓이지 않고 활용어미에 놓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표 4>에서 보면 이 두 인칭만 활용어

미에 주장세가 놓여서 앞의 전강세약모음이 점차 탈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음 사이에 위치한 유성방해음 “b”는 전 인칭에서 사라지고 있다.

또한 격변화와 활용에서 인칭 사이에 명확한 형태적 차이를 유지하고 있던 라틴어에서는 동사 활용에서 인칭을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인칭을 표시하면 거기에 상당한 강조의 의미를 띠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인칭을 쓰지 않고 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표 4>에서 시기적으로 다음 단계의 형태인 고대 프랑스어의 활용표를 보면 라틴어의 악센트가 동사활용에 미친 영향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약세음들은 탈락하고 강세음들만 남아서 활용변화를 이룬다.

1s, 2s, 3s, 3p에서는 어기의 모음 “o”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1p, 2p에서는 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때부터 동사활용에서 인칭의 표시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인칭이 괄호로 표시된 것은 쓰임새가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텍스트에 따라서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확정이 안됐음을 나타낸다.

고대 프랑스어도 라틴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쓰여진 모든 음소phonème가 발음되기 때문에 발음만으로도 인칭이 구별될 수 있었다.³¹⁾ 하지만 벌써 변형되어 사라지는 단수변화의 활용어미의 존재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인칭주어의 표기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라틴어 “parabolare”가 프랑스어 형태로 골격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3s에서 보듯이 고대 프랑스어는 아직 라틴어 어미 “t”를 완전히

31) 현대프랑스어의 발음상의 특징인 어말묵음화현상은 고대 프랑스어 시기를 지나 중세 프랑스어(13-14세기) 시기에 고착화되는 현상이다.

버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칭 주어의 형태가 1p, 2p에서는 여전히 라틴어 형태 “nos, vos”를 유지하고 있고, 2p에서는 어미가 “z”와 “s”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다.

3p 주어에서는 복수 지표인 “s”가 확정이 안됐음을 보여준다.³²⁾

이제 최종적인 형태인 현대 프랑스어의 활용표를 살펴보자.

<표 4>에서 고대 프랑스어와 현대 프랑스어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로 인칭주어의 사용 확정이다. 현대 프랑스어는 격이 완전히 사라지고 활용에서도 단수 변화와 3인칭 복수에서는 음성적으로 어미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칭 주어의 사용은 인칭의 구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복수인칭주어들의 형태도 변하여 “nous, vous”의 형태와 당연히 복수지표 “s”를 포함하는 “ils”의 형태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중세 프랑스어를 거치면서 어말묵음화현상으로 활용어미의 자음들이 들리지 않게 되어 더욱 인칭 주어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32) 현대 프랑스어의 복수 지표인 “s”는 라틴어의 격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라틴어 대격accusatif이 최종적인 프랑스어의 형태모형이 됨으로써 잔존한 격어미 표시이다.

이 때 명격nominatif은 단수에 “s”표지를 갖고 대격이 복수에 “s”표지를 갖는데 최종적으로 대격이 프랑스어의 형태어원이 됨으로써 “s”는 복수의 표지가 되었다.

그러나 고대 프랑스어는 주격cas-sujet과 목적격cas-régime의 2격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단수에 “s”표지가 붙고 복수에는 “s”가 없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대 프랑스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체계로, 최종적으로 대격만이 남아 격이 완전히 소멸되는 중세 프랑스에 와서 현재의 복수체계가 성립하였다.

둘째로 큰 차이점은 여기 “parl”에서의 변화인데, 고대 프랑스어의 단수와 3인칭 복수에서 존재했던 “r”과 “l”사이의 모음 “o”가 전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지금까지의 논의했던 음성변화changements phonétiques와는 달리 유추변화changements analogiques에 의한 것이다. 이 변화는 같은 체계 내에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변화이다. 즉 프랑스어 동사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1군 변화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형태변화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³³⁾

ii-ii. “parler”의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인 “parlant”과 “parlé”는 18세기 이후에 문법의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어휘화하여 형용사파생어가 되고, 접두사인 “re”와 “pour”가 첨가되어 다시 동사를 파생시킨다.

iii. parleur(XII)

a) ↘beau-parleur(XV), haut-parleur(XX<calqué sur l’angl. *loud-speaker*)

b) ↘parloir(XII), parlote(XIX < dér. de *parler*)

“parleur”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수다쟁이”의 의미로 “parler”형태에서 행위명사로 파생시킨 어휘이다. 이 계열의 어휘들은 “parler”의 어원인 “parabolare”와는 아무런 관련 없

33) 같은 1군동사인 “aimer”의 경우도 어두모음을 통일 시킨 경우이다. 고대 프랑스어에서 “aimer”는 직설법 현재에서 “(j’)aim(e), (tu) aimes, (il) aime, (nos) amons, (vos) amez, (il(s)) aiment”와 같은 형태적 괴리가 있었다. 이것은 물론 라틴어의 악센트 규칙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프랑스어는 1, 2인칭 복수의 어두모음 “a”를 다른 인칭들의 어두모음 “ai”로 변환시킴으로써 해서 체계를 통일시킨 것이다.

이 오직 프랑스화한 파생방식으로 어휘를 생산한다.

- iv. parlement(XI“conversation”,XIII “assemblée des grands,
judiciaire” < anc.fr. parlement < dér. de parler)
↳ parlementer(XIV),parlementaire(XVII), parlementarisme(XIX)
antiparlementaire, ntiparlementarisme(XX)

“parlement”의 “-ment”은 전형적인 프랑스어의 명사파생 접미사이고 “parle”에 붙어서 “대화”, “법률적 혹은 귀족들의 모임”을 의미했다. iii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대 프랑스어의 어휘들은 15세기 이후에 정치, 문화적 발달과 더불어 많은 어휘를 생산해 내게 된다.

- v. palabre(XVII, XIX < esp. *palabra* < *parabola*)
↳ palabrer(XIX)

“palabre”는 스페인어 “palabra”에서 차용한 어휘인데 “palabra” 역시 라틴어 “parabola”에서 변화했다. 그런데 같은 로마어 계열 언어인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는 프랑스어와 달리 라틴어의 악센트를 유지하고 있어서 프랑스어 보다는 음성적 변화를 훨씬 덜 겪은 언어들이다.

“palabra”에서 보듯이 스페인어는 라틴어의 원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parabola”에서 “r”과 “l”이 음위전환 métathèse³⁴⁾하여 “palabra”의 형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34) 이 현상은 같은 단어 내의 음소들이 자리를 바꾸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실수하는 현상도 포함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형태”를 의미하는 어휘 중에 그리스어 계열의 “**morph-**”와 라틴어 계열의 “**forme**”도 “m”과 “f”의 음위전환으로 이루어진 어휘이다.

2.1.4 “διαβαλλω”계열

“διαβαλλω”계열은 위의 두 계열과는 달리 접두어 “dia”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계열이다. 그렇지만 이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해도 그 계열 어휘들이 “dia”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통시적 분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 i. diable(X“esprit du mal”, XIX“petit chariot”<par le lat. diabolus)
 - ↳ diablement(XVI), diablerie(XIII), diabolin(XVI),
diablesse(XIV), endiablé(XV)

i-i. “diable”은 라틴어 “diabolus”에서 형태 변화하여 생성된 어휘인데 라틴어 “diabolus”는 그리스어 “διαβολος”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이 “διαβολος”는 글자 그대로 “가로지르며 (던지는) 방해하는 사람”의 뜻으로 “중상 모략하는 사람”의 의미이다. 그런데 이 어휘가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에서였다. 기독교의 전파와 더불어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이입된 이어휘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Satan”을 번역하기 위해 그리스계 유대인 번역자들이 택한 그리스어의 어휘였다.³⁵⁾ 그리스어에는 “διαβολος”와 “Σαταν”이 모두 존재하지만 라틴어는 “Satan”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이 “diable”이 바로 그 의미로 차용된 어휘이기 때문이다.

- i-ii. “diable”의 파생어휘들은 “διαβολος”나 “diabolus”와 상

35)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 역septua ginta의 그리스어 성경에서 사용하였다.

관없이 프랑스의 접미파생어를 첨가하여 생성된 어휘들이다.

ii. diantre(XVI)

“diable”에서 그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변형된 어휘이다. 17세기 이후는 주로 욕설에 쓰인다.

2.2 “βολη”의 식자어 어휘의미장

3)에서 이 “βολη”의 식자어 어휘의미장 구성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어휘들은 대부분 라틴어에 이미 이입된 그리스어를 13세기 이후에 프랑스 식자들이 다시 차용한 어휘들이고 이 어휘들에서 다시 프랑스어 접미사를 첨가하여 생성한 어휘들이다.

“-bol- (-bolisme-)” 계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blèm-”은 오직 두 가지의 계열만 존재한다.

2.2.1. -bol- (-bolisme-) 계열

“-bol-”계열은 근본적으로 중세 프랑스어 이후의 식자적 차용어들이기 때문에 원형 “βολη”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입된 후에 다시 프랑스어적 접미파생 접사에 의해 “-bolisme-”의 형태를 생성하게 된다.

i. diabolique(XIII < lat. eccl. diabolicus < διαβολικος

der. de διαβολος)

↘ diabolico(XX)

형용사 “diabolique”는 2-1-4에서 논의했던 “διαβαλλω”계열의 명사 “diable”의 형용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어원을 갖는 이 둘의 형태상의 괴리로 인해 쌍립어doublet 관계로 말할 수 있지만 품사의 카테고리가 다르므로 정확한 쌍립어는 아니다.

통시적 음성변화를 겪어서 프랑스에 이입된 명사 “diable”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중세 프랑스어 시기에 직접 차용한 “diabolique”가 되어 같은 의미 계열의 어휘 사이에 형태적 괴리를 보이는 것은 프랑스어에서는 드문 예가 아니다.³⁶⁾ 이것은 라틴어에서 격변화의 대표 품사인 명사계열이 주로 통시적 음성변화를 겪어서 프랑스에 이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형용사에 해당하는 표현은 전치사 “de”를 써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 visage du diable
amour de la mère

b. visage diabolique
amour maternel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a와 b가 같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인 화자가 느끼는 양자의 뉘앙스의 차이는 크다. a는 전치사로 연결된 2개의 명사에 의해 2개의 나뉜 개념이 되고, b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하나의 명사에 의해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36) 가장 자주 쓰이는 가족의 어휘인 “père, mère”도 형용사는 “paternel, maternel”과 같이 변한다.

20세기에 형성된 “diabolo”는 음료의 강함을 강조한 일종의 작명이다.

ii. bolide(XVI “météore”, XIX “engin rapide”)

“bolide”는 강하게 던져진 것처럼 “쏟살같이 빠른”의 이미지이다.

iii. amphibole, amphibolique (XIV<lat. amphibolia<adj. αμφιβολος)
amphibologie(XVI < bas lat. amphibologia < n. αμφιβολια)
amphibologique(XIV)

“amphibole”의 접두어 “amphi”는 “autour, entre”의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 부사 “αμφι”이다. “주변에 놓여” 그 의미가 “모호한, 불확실한”을 가리킨다.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αμφιβολος”는 다른 파생어휘와는 달리 명사가 아닌 형용사형이고, 명사형은 “amphibologie”의 어원인 “αμφιβολια”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명사형 “amphibologie”보다 형용사형 “amphibologique”가 먼저 프랑스어에 이입되었다는 것이다.³⁷⁾

v. “-bole” 계열

이 “-bole”계열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이 것이 2) 와 3)의 표에서 제시한 접두파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βολη”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37) 이 계열에서 의학 등 특수 분야에서만 사용하여 빈도수가 현격히 떨어지는 어휘들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a. hyperbole(XIII < lat. hyperbole < `υπερβολη)
 ↘ hyperbolique(XVI)

“hyperbole”은 2)의 표에서 보여준 “`υπερ + βολη”의 파생 형태이다.³⁸⁾ “`υπερ”가 “위에 있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hyperbole”은 “위에 던져진, 놓은”의 의미에서 수사학적으로 “과장(법)”의 의미를 갖고 17세기에는 수학적으로 “쌍곡선”을 뜻하게 되었다. 이 “hyperbole”에서 형용사형 “hyperbolique”의 파생은 라틴어의 형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b. parabole(XIII “récit allégorique”, XVI “courbe décrite par un projectile”)
 ↘ parabolique(XVI)

“parabole”은 어원적으로 같은 “parole”와 형태상으로 쌍립어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παρα + βολη”는 “옆에 놓은”으로 우회적인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 어휘가 13세기에 다시 차용된 것은 이미 “parole”에서는 사라진 “우화적 이야기”의 의미로 프랑스어에 들어온 것이다.

c. symbole(XV < lat. eccl. symbolium < συμβολον)
 ↘ symboliser(XIV), symbolique(XVI),
 symbolisme, symboliste(XIX)

38) 그리스어 모음 “υ”는 “전설 원순모음”이다. 그런데 이 모음이 라틴어에 차용될 때는 원순성이 풀려서 평순성이 되어 단순히 “i”의 음가를 같이 “y”가 된다. 그래서 “i”와 음가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이 철자를 프랑스어에서 “그리스어 i 즉 i grec”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symbole”은 이 “-bole” 계열에서 가장 많은 어휘와 가장 높은 사용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계열이다.

“συν + βολη”의 파생형태인 “symbole”은 글자 그대로 “함께 던진”의 의미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의 “상징”이 되었나하는 것은 역시 고대 그리스 사회의 정치문화에 기인한다.³⁹⁾

이 계열은 중세 프랑스어 이후 동사 symboliser, 형용사 symbolique, 추상명사 symbolisme, 행위자 명사 symboliste 등을 파생시킨다.

d. discobole(XVI < δισκοβολος)

“discobole”은 제1 요소인 “δισκος”가 “원반disque”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명사이므로 접두파생이 아닌 합성으로 형성된 명사이다. 그런데 이 어휘는 라틴어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르네상스 시기인 16세기에 프랑스인 식자들이 직접 “투원반 선수”의 의미인 그리스어 “δισκοβολος”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⁰⁾

vi. “-bolisme” 계열

v-c의 “symbolisme”에서 보았듯이 “-isme”은 추상적 사고나 신념을 가리키는 어휘를 생성하는 접미사이지만 여기서의 어

39) 고대 그리스민주주의에서는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조개껍질이나 나무조각 등을 던져서 추방하는 폐각추방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 때 같이 폐각추방에 참여하여 조각을 던진 사람들이 조각을 나눠 갖고 그 후에 오는 후계자들이 이것을 맞춰서 서로 같은 편임을 알게 하였다는데서 이 조각이 동지의 “상징”이 되었다.

40) 이 “δισκος”의 라틴어 형태인 “disco”는 “배우다”의 의미인 동사이다. “disciple” 계열의 어휘들이 “disco”에서 파생된 어휘들이다.

휘들은 모두 실제 행위를 가리킨다.

- a. anabolisme(XX)
- b. catabolisme(XX)
- c. métabolisme(XIX)

이 어휘들은 모두 아주 근래의 학문발달과 더불어 생리학 분야에서 차용한 것들인데 a, b의 “ανα”와 “κατα”는 2)의 표에서 보듯이 그 방향이 각각 위와 아래를 향하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생리학 분야에서 이들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반대의 의미로 사용된다.

c의 “μετα”는 “au milieu, dans, parmi”의 의미로 역시 생리학에서 “신진대사”의 의미로 더불어 진행함을 나타낸다.

- d. embolisme(XII)

d는 이 계열에서는 유일하게 고대 프랑스어 시기에 이입된 것이다. “embolisme”은 “εν + βολη”에서 보듯이 접두사 “em”은 “in”의 의미인 “εν”의 형태가 다음 자음과 조음점 동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가운데에 놓은(던진)”의 의미에서 특별히 “태양력과 태음력을 맞추기 위한 윤달, 윤년의 삽입”을 의미한다.

2.2.2 -blèm- 계열

이 “-blèm-”계열은 표 2)에서 보면 “βαλλω”계열에서 완벽하게 18개의 접두사와 파생어휘를 생성하는 “βολη” 다음으로

13개의 접두사와 함께 어휘 파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βολη”를 어기로 하여 명사파생접미사 “-μα”가 붙어서 파생되는 어휘들인데 이 때 어기의 모음이 소실된다.

$$\beta\omicron\lambda\eta + \mu\alpha \rightarrow \beta\lambda\eta\mu\alpha$$

이렇게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을 때 어기의 모음이 약화나 소실되는 현상은 파생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μα”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⁴¹⁾

- i. emblème(XVI par le lat. *emblemata* < εμβλημα < εμβολη)
↳ *emblématique*(XVI < bas. lat. *emblematicus*)

“emblème”은 19)에 따라 “(εν + βολη) + μα”의 파생이 되므로 “안에 넣어 놓은 것”의 기본 의미에 따라 어떤 언어집단이 이 어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뜻은 변할 수 있으나 프랑스어에서는 방패나 제복 따위의 안에 새겨 넣은 “문장, 표장, 상징”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형용사 파생어 “*emblématique*”는 원래 그리스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나 후기 라틴어에서 자체 파생으로 생성한 “*emblematicus*”를 르네상스 시기에 프랑스어가 차용한 것이다.

- ii. problème(XIV par le lat. *problema* < προβλημα < προβολη)
↳ *problématique*(XIV adj. XX subst.)

41) 이 “-μα”와 짝을 이루는 접미사가 “행위 그 자체”를 나타내는 명사파생 접미사인 “-σις”이다. 이 쌍의 파생으로 프랑스어에 “*poésie, poème*”, “*thèse, thème*”와 같은 어휘쌍들이 존재한다.

“problème”도 “(προ + βολη) + μα”의 파생경로를 따르는데 “앞에 놓아 둔 것”의 기본 의미에서 “question posée”의 뜻을 갖게 되어 “문제, 난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형용사 파생어 “problématique”는 16세기에 형용사의 의미로 파생되었는데 20세기에 와서 명사적인 의미가 첨가 되었다.

III. 맺는 말

모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언어탐구는 그 언중들의 의식세계를 탐구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시적 언어탐구는 바로 오랜 세월을 통하여 언어에 담긴 그들의 정신적 세계와 가치관 속의 의식의 변화를 탐구하는 인문학적 작업이다.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되는 “parler”와 “βολη”의 변화의 제양상을 탐구하는 것은 바로 현대 프랑스인들의 선조인 골 지역에 살았던 언중들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으며 어휘를 선택해갔나를 밝히는 것이다. 그들이 선택한 어휘들은 오늘날의 현대 프랑스어 어휘가 되어서 프랑스인의 의식 속에 남아 그들의 공동의 문화의식을 형성한다.

이 글에서 “parler”와 “βολη”의 어원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독교 라틴어 “parabolare”가 프랑스어의 “parler”가 되는 과정에서 라틴어의 악센트 규칙과 게르만식 발음의 특징 등 언중들의 언어 특징이 반영되고 프랑스어 자체 내에서 체계를 통일시키기 위한 메카니즘을 가동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열의 프랑스어 어휘의미장과 비교해보면 그리

스어의 어휘의미장이 얼마나 많은 파생어휘를 생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프랑스어의 식자들은 어휘장 내에서 비어있는 우연적 공백lacune accidentelle을 채우는 방향으로 어휘를 생성시키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라틴어를 경유하여 들어온 그리스어 어휘는 라틴어 내에서 이미 차용어로서의 신분으로 그리스어 고유의 생산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프랑스어로 이입될 수밖에 없었는데 19세기 이후 학문의 발달과 더불어 학문적 분야를 비롯하여 식자층에서 다시 그 파생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로마 문명이 얼마나 프랑스인의 의식 속에 문화의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 Bibliographie

Buck, C.D, *Comparative grammar of Greek and Latin*, The University of Chicago, 1933.

Celard, Jacques, *Les racines grecques du vocabulaire français*, Editions Duculot, 1986.

Clackson, James, *Indo-European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2007.

Hamon, Albert, *Les mots du français*, Hachette, Paris, 1992.

Lanly, André, *Morphologique historique des verbes français*,

- Champion, 1995, Paris
- Lehmann, Alise, *Introduction à la lexicologie*, Armand Colin, 2010.
- Machonis, Peter, *Histoire de la langue-Du latin au françai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0.
- Marchello-Nizia, Christianne, *Le français en diachronie -douze siècles d'évolution-*, Ophrys, 1999.
- Meillet, Antoine, *Linguistique historique et linguistique générale*, Honoré Champion, Paris, 1975.
- Mounin, Georges, *Histoire de la linguistique*, PUF, Paris, 1967.
- Normand, Claude, *Saussure*, Les Belles Lettres, 2004.
- Paveau, Marie-Anne et Sarfati, Georges-Elia, *Les grandes théorie de la linguistique*, Armand Colin, 2010.
- Picoche, Jacqueline, *Précis de lexicologie française*, Fernand Nathan, Paris, 1992.
- Soutet, Olivier et autres, "Diachronique" -Périodisation-, *Revue linguistique française diachronique*, Presses de l'Université Paris-Sorbonne, 2011.
- 장재성(2002), 「불어 어휘의 어원적 구조 분석 - 그리스어 어원의 접두사 파생어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46, pp. 25-63.
- 장재성(2001), 「고전 그리스어 어원의 프랑스의 어휘의 몇몇 양상」, 『변혁의 시대와 문학』, 민음사, pp. 447-481.

«Résumé»

Quelques aspects des changements diachroniques des “parler” et “βολη”

CHANG Chae Seong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Toutes les langues représentent l'optique du monde et le jugement de valeur de leurs sujets parlants. L'étude d'une langue est donc celle de rechercher le monde des consciences du peuple qui utilise cette langue.

La linguistique diachronique essaie d'éclaircir le changement du monde psychique et des consciences des sujets parlants dans l'histoire d'une langue.

La recherche de quelques aspects des changements diachroniques des “parler” et “βολη”, thème majeur de cet article, c'est bien éclaircir comment les habitants de la Gaule ont choisi leur lexique en subissant les changements de leur mentalité.

En analysant la relation étymologique entre les “parler”

et “βολη”, on pouvait voir la règle des accents latins et la particularité des prononciations germaniques influencer sur l'ancien français, qui a fait opérer, depuis lors, lui-aussi, le changement analogique pour unifier le système de la conjugaison des verbes.

Et en comparant les champs sémantiques du français et ceux du grec, on pouvait savoir combien le grec ancien possédait les mots dérivés abondants et que les savants français ont la tendance de remplir la lacune accidentelle existante dans les champs sémantiques du français particulièrement depuis le 19^{ème} siècle.

Tout cela signifie que la civilisation greco-romane s'enracine fermement comme archétype de culture occidentale dans la conscience des Français et plus, dans celle des Européens.

주제어 : 파롤, parler, βολη, parabolare, 의미장, 통시적 변화, 생산성, 어휘가능성

mots-clés : parole, parler, βολη, parabolare, champs sémantiques, changements diachroniques, productivité, disponibilité

투고일: 2011년 10월 5일

심사일: 2011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24일